(김 에스더 선교사 기도편지)

목사님,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보다는 훨씬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이곳의 여러 상황으로 제가 출국에 유의하고 있어서 아제르바이잔 영혼들이 여기로 오기로 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의 만남인데도 어제 헤어졌다 만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지체들과 1주일을 보내면서 피차 영적 회복과 믿음의 도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남을 통해 믿음 생활하다 세상으로 돌아간 지체들을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일 뵈\*\*\*\*\*의 출국을 위해 남동생이 자동차로 공항까지 배웅하기로 하고 자매를 태우려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자동차 에어백도 터지고 자동차는 앞 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지만, 유리창도 깨지지않고 동생도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메세지를 보냈더니 H가 답장에 "주님이 구해주셨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남동생은 후배 사역자와 연결되어 교제하면서 주일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가정을 이루었지만, 후배 사역자 가정도 철수하고 이후에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심따라 형제 가정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수\*\* 가정이(남편, 4살 아들) 옵니다. 94년 처음 만났을 때 13살? 이었던 자매입니다.

뵈\*\*\*\*이나 수\*\*는 가정(부모, 여동생) 제 초창기 사역의 기도편지 제목에 빠짐없었고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가족같은 영혼들입니다.

24년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땅에서도 이러한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짧은 근황과 함께 첨부 파일에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평안하십시오.

김에스더 드림

**-기도제목-**

1. 아침 묵상과 말씀, 기도 시간의 우선 순위가 지켜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2. 3월 19~26일까지 A국 4명의 지체들 방문을 위해 (V 자매, S자매 가족(남편, 4살 아들)

1) 보안과 안전, 2박 3일 동안 흑해 지역의 여행의 일정을 위해

2)피차 영적 부흥과 쉼의 시간이 되기를

3. 복음으로 교제할 영혼과 마음 밭이 좋은 영혼을 만나 예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4. 이 땅의 영적 상황과 주변국과의 상황을 위해(사역자들의 비자발적 입국과 전쟁, 난민…)

5. 한식 강좌를 통해 직업적 전문성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강사로 세우는 사역을 위해

1) 3월 16일 한식 행사 시연(한국인 10명)

2) 3월 27일 한식 행사 (VIP 한국인 4명, 현지인 6명)

3) 3월 한식 행사 조리 도우미 U부인, 정리 도우미 X부인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6. 소명과 사명을 위해 영육이 강건하여 태신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묵도할 수 있도록(수면 장애, 갱년기 증상, 체력저하…… )

7. 침상에 있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자매들의 건강과 영육의 평강을 위해